

논바닥 썩썩 한숨 푹푹...“모 다 죽게 생겼네”

르포-극심한 가뭄 신안 지도읍 태천리를 가다

저수지마저 말라붙어 모내기 포기한 논 속출 “이달도 비 소식 없다는데...올해 농사 망칠 판”

“40년 가까이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 같이 극심한 가뭄은 정말 처음입니다.”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에서 농사를 짓는 주태남(59)씨는 요즘 논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지난달 10일께 23ha(7만평)의 논 가운데 겨우 10ha(3만평)에 모내기를 했지만 물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한 달 만에 모가 모두 말라죽기 직전이다.

주씨는 “수시로 일기예보를 체크하지만 6월 말까지 비 소식이 없다”며 “최대한 모내기 작업을 늦춰도 이달 말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비는 고사하고 지하수조차 공급이 어려워 사실상 올해 농사는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밤 기다리던 비가 내렸지만 고작 8mm에 그쳐 해갈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모가 고사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농민도 그렇지만, 모내기조차 하지 못하고 비가 오기만 기다리는 농민 역시 속이 타들어가는 마찬가지다.

10일 오후 찾아가 본 태천리의 논 바닥은 이미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바람만 불어도 흙먼지가 날렸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태천리 곳곳에는 모내기를 포기한 논들이 많았다. 이들 논에는 잡풀이 가득 차 있었고, 군데 군데 일찍 심어 놓은 모 역시 물이 부족해 전혀 자라지 못한 채 타들어가고 있었다. 물이 모두 말라 버린 탓이다.

태천1저수지와 태천2저수지 역시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중순께 그나마 바닥에 고여있던 물이 지금은 모두 말라 버렸다. 저수지는 물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말라버린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썩썩 갈라져 있었다. 지난해 태천1저

수지는 농사에 필요한 물을 비축하기 위해 기존 저수지에 2m의 제방을 추가로 쌓는 공사를 진행했지만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지의 물이 말라버린 탓에 공사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 물이 말라버린 저수지 주변에는 여기저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고무호스들이 방치돼 있었다.

전남도 내 무안, 신안 등지에서 물마름과 고사 현상이 심각하지만, 당분간은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사와 물마름 등 가뭄피해 면적은 무안(329ha), 신안(148ha), 강진(98ha), 함평(11ha) 등 576ha에 이른다. 특히 강진군 신전면과 해남군 북일면에 걸쳐 있는 사내호는 염도가 높아져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해안지역 피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모내기 지연 면적은 이달 초 4000ha를 넘었다가 최근 내린 비로 3200ha로 줄었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6월 가뭄 예·경보’를 통해 “장마 기간 강수가 적어 가뭄은 7월까지 중서부 일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8월 들어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가뭄이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전국 강수량은 평년(331mm)의 69% 수준이다. 이에 따라 무안과 신안 가뭄이 ‘심함’단계로 분류됐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충남·북, 경북 지역 33개 시·군에 주의 단계의 ‘가뭄’이 발생했다. 가뭄 단계는 정도에 따라 ‘주의’→‘심함’→‘매우 심함’으로 나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신안=김한영기자 young@



10일 신안 지도읍 태천리 마을 주민인 주태남(59)씨가 가뭄으로 썩썩 갈라진 논바닥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고 있다. 땅은 모내기를 마친 논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메말라 있다. /신안=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은행 전산 하도급체 직원의 ‘간 큰 범죄’ 대출한도 조작 3개월간 24억원 빼들려

은행의 전산 하도급업체 직원이 자신의 대출 한도 등을 조작해 수십억원을 빼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11일, 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돈을 빼돌린 혐의로 광주은행 하도급업체 전산직원인 오모(2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입사해 전산실 보조업무를 시작한 오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달에 걸쳐 광주은행 전산실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광주은행의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했다. 오씨는 이어 자신의 신용등급을 올리고 대출 한도를 25억원으

로 조작했다. 이렇게 자신의 한도를 수정한 오씨는 ATM기기 등을 통해 현금 서비스를 받는 수법으로 2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자신이 빼돌린 돈인 24억원 중 11억원의 현금을 포인트화시켜 스포츠 도박에 베팅,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금액인 13억원은 오씨를 상대로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교도소 수감 50대에 권총 실탄 3발 나와

소지품 검사 과정 발견 수사

경찰용 아닌 사격 경기용

50대 남성이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소지품 검사를 받던 과정에서 권총 실탄 3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께 벌금을 미납해 붙잡힌 A(54)씨를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수감하는 과정에서 실탄 3발이 나왔다. 발견된 권총 실탄의 외관색상은 경찰 등이 사용하는 금색이 아닌 은색으로, 사격 경기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측은 교통신고처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 A씨를 노역장에 가두며 소지품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서 실탄을 발견했다.

A씨는 “지난해 광주 북구의 한 공원 팔각정 인근에서 주웠다. 그때 입고 있던 옷에 넣어둔 후 잊어버렸고 그 옷을 올해 다시 꺼내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실탄 소지 경위를 조사 중이며 발견된 실탄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영암 아파트에서 3세아 베란다 추락 숨져

영암의 한 아파트에서 3살 어린이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30분께 영암군 용양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이 아파트 14층에 사는 A(3)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쿵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1층 관리사무소 옥상에 아이가 쓰러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고 당시 A군은 친척이 돌봐주고 있었으며 친척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이 1.1m 높이 베란다 난간을 양손으로 잡고 몸을 내밀었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암=전봉원기자 jbh@kwangju.co.kr

이혼소송 중 처가 찾아가 장인 폭행한 의사 사위 징역형

○...이혼소송 중에 처가를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고 장인을 폭행한 30대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11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에 따르면 의사 A(36)씨는 지난해 12월 처가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다며 대문을 걷어차 파손하고, 현관문으로 들어가려다 장인 B(63)씨가 막자 욕

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기소

○...안 판사는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상해·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다만 가정불화로 진정으로 간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범행했고, 이혼소송을 하며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하늘만 쳐다보는데...장마까지 늦어져 애타는 농심

21일까지 비 예보 없어

내달도 ‘따뜻 장마’ 가능성

광주·전남 곳곳에서 비를 기다리며 하늘만 쳐다보는 날들이 길어지고 있다. 주말인 지난 10일 전남지역에 예보됐던 비는 화순·장흥 등 일부 지역에만 소나기를 뿌리고 그쳤다. 비구름이 우리나라 북쪽에 자리잡은 찬 고기압에 밀려 전남 등 내륙을 벗어나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21일까지 광주·전남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피해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화순과 장흥 등 일부 전남지역에 비가 내렸다. 화순 29.5mm, 장흥 26.9mm, 영암 16.5mm, 보성 6.5mm, 광주 0.8mm를 기록했다. 가뭄 피해가 극심한 탓에 이번 비는 해갈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기상청은 중기예보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10일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오는 15일부터 30대가 넘는

무더위까지 예고되면서 가뭄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가뭄 해소의 한가닥 희망인 ‘장마’조차 늦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현재 대만 동쪽, 일본 오키나와, 일본 시코쿠 남쪽에 머물러있는 장마전선이 6월 말께 우리나라로 북상해 남해안 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평년보다 1주일가량 늦어지는 시기다.

기상청의 3개월 기상전망을 보면 6월 광주·전남의 평균 강수량은 평년 강수량인 206.5mm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7월

강수량도 평년 275.3mm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따뜻 장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올 여름 한반도에는 태풍 2개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강수량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자칫 장마 뒤 집중호우와 태풍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최근 10년 여름철 평균기온은 높아지고 강수량은 평년대비 89%를 기록하는 등 줄어든다”면서 “올해 장마기간인 6월 말과 7월 초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8월들어 예년만큼 비가 내리면서 가뭄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보 1천만-월 70만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

영광 전원주택 매매

토지 151평, 건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매가 1억 (용 2천)

상무지구 상가 매매

10층 중 6층 (19평)

보 500만 월 44만

매가 8천300만

북구 중흥동 모아A.P.T

전대 정문 2분 . 광구역 2분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갈끔)

매가 2억4천(용 1억6,500만)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구분 상가 (소액) 물건 추천

- 북구 신안동 (10층 중 3층 상가) 토 13평, 건 34평 (실명수), 월수익 100만원 ▶ 감평가 1억4,600만 → 최저가 5천2백
- 동구 산수동 (다가구 원룸등) 토 83평, 건물 145평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3억5천
- 남구 서동 (상가주택) 토 78평, 건114평, 1층(상가) 2층(원룸) 3층(주택) ▶ 감평가 5억2천 → 3억6천
- 광산구 장덕동 (7층 중 2층 상가) 건 40평, 수원지구 대방노블랜드 후문(코너) ▶ 감평가 3억8천 → 최저가 2억6,500만
- 남구 백운동 589-14 (근린주택 3층건물) 토 65평, 건 145평, 월세 250이상 ▶ 감평가 3억 → 최저가 1억7천
- 상무지구4층상가 전용면적 19평, 월세 120 이상 ▶ 2억6천 → 1억2천
- 상무지구4층상가 전용면적 39평, 월세 240 이상 ▶ 5억4천 → 2억4천 ※ 반값경매, 특수물건, NPL(다수있음) ※

- 경매교육 (기초반)**
▶ 매주 10시 30분 경매기초부터 ~ 입찰까지
- 경매교육 (실전,투자반)**
실전 교육되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텝강의

직원모집
경매 부동산 같이 하실분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상무지구 한국은행,현대아파트 사이)

아파트경매물건 추천

- 서구 풍암동 풍암3차 대주아파트 (분양면적 35평) 감평가 2억2,300만 → 최저가 1억5,600만
- 북구 윤암동 벽산블루밍메가시티 (분양면적 49평) 감평가 3억5천만 → 최저가 2억4,500만
- 광산구 수원동 우미리아파트 (분양면적 33평) 감평가 3억3천 → 최저가 2억3천2백

010-7384-7800 010-6670-9800